東亞日報 夕刊 十一月四日(土) 發行所 東亞日報社

政變은今月中旬?

陸相의意味深長한談話

政界의神經을非常히刺戟

非常時認識對立

豫算問題에서爆發?

政局加一層緊張形勢

豫算爭奪戰

去益熾烈化?

最後的閣議는今月下旬

御興儀는 十二日로御治定

豫算問題難關

軍事費問題

今後의迂餘曲折豫想으로 政局에微妙한影響

政治工作設定에

冷談한米國態度

外務省에大衝動招來

釜山米取 受渡米審査

露中不侵條約草案

國府에서目下審議中

露大使가汪精衛에手交한것 通商交涉도同時에進行

非常的訓練에서

正常的訓練에

◇……米海軍當局談

米國大西洋艦隊

明夏根據地에廻航

時期는大統領의視察旅行後

早大統領 太平洋上巡行 議會終了後

早大統領就任後

半年만의政策變更

極東事態複雜化로?

汽船伸長作業

米國政府는今後

對歐無關主義?

注目되는今後의態度

正常的狀態에 復歸하는것뿐 外務省見解

一時的行動 海軍當局談

英米兩國과協力

軍縮事業達成

經費節約으로財政의均衡圖謀

佛新內閣의新政策

伊下院組織 改造

國府當面의 財政問題 孔財政部長談

四川省의共產軍

內外로呼應하야

西部의太半攻略

首都成都進擊을計劃

重慶에는戒嚴令宣布

横說竪說

團成社 朝鮮劇場 第一劇場 優美館

三陟에 時局犯二名 巨金을 強奪潛跡
一夜에 鑛所와 旅館을 襲擊코
警察은 血眼搜索中

三일 경무국착전에의하면 一일오후八시경 강원도 삼척군하장면(三陟郡下長面) 여관에 투숙하였든 사람 두명이 나타나 그 여관에 숙박중이든 송정하(宋禎夏)씨의 여관에 ……… 금광에 출장 내어 ……… 이라 하면서 단도(短刀)를 내어대이고 현금 一원七十전을 강탈하여 가지고 그길로 바로 동면 추동(楸洞)에 있는 ……… 조선사람 광부 ……… 三百円을 강탈하여 가지고 어대로인지 도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급보를 접한 삼척경찰서에서는 경관을 총동원하여 가지고 수사중이나 아직까지 범인은 잡지 못하였다고 한다.

犯人은 鑛夫 各地에 手配 今明間被捉?

大金을 拾得하야 上京하야 消費해

추운街頭에 男子行旅死

◇蹴球大會畵報 ＝優勝團體 上은 鏡農 下는 忠信

安東事件의 다섯사람 補償請求全部棄却
八個月 囹圄生活도 呼訴無處
「警察에 自白」이 原因

안동(安東)경찰서 재상(川上)…… 에 걸린 補償請求 사건의 ……… 다섯 사람 ……… 五명에 대하여 ……… 이미 기각되었다고 한다.

一圓짜리 火災

上海事件으로 趙東祜氏被檢
상해에서 검거한 사건관계
今朝新義州署로 押送

朝鮮拳鬪또快勝
昨日對中部日本戰에
日本에遠征하야三勝코
七日夜車로凱旋

【聯合名古屋電話】 日本에 遠征하야 轉戰中의 朝鮮拳鬪俱樂部對中部日本의 拳鬪戰은 三日午後六時半부터 名古屋市 公會堂에서 擧行되바 三對二로 朝鮮軍 快勝하야 日本遠征 四戰三勝 一無勝負의 好成績을 걷우고 七日午後八時五十五分 京城驛着 列車로 凱旋하게 되엇다.

【밴담級】 ○金昌煥(朝鮮)—判定—左右田光×
【페더級】 ○神崎(中部)—判定—金成洛(朝鮮)×
【라이트級】 ○朴龍振(朝鮮)—判定—…×
【웰터級】 李奎煥(朝鮮)—判定—…×
【플라이級】 ○村田光盛—判定—文…×

待望되든마라손決勝 南昇龍君이二着
그라임은二時卅二分卅三秒

【聯合東京電話】 本年에열리는 明治神宮大會의 마라손競走는 우리 待望의 孫, 南兩選手出場하야 그 活躍이 期待되든바 南昇龍(全南順天—明治高普生)君이 二時間三十二分三十三秒의 好記錄으로 一着하엿다. 더욱 期待되든 孫君은 何等 通信이 없어 자세히 알수없으나 一着은 西岡의 二時間三十一分으로서 世界新記錄을 東京의 本코스에는 처음으로 지엇다.

陸上競技決勝

【跳高】 ▲1、淸水(早大) ▲2、淺川(文理大) ▲3、山本(名古屋高商)
【百米】 1、南部(滿洲) ▲2、近藤 ▲3、阿武(中央)
【八百米】 ▲1、保坂 ▲2、吉地 ▲3、天近(札鐵)
【走幅跳】 1、南部 ▲2、田島(京大) ▲3、東川(早大)
【投砲丸】 1、高田 ▲2、西田(文理大) ▲3、西村(佐賀)
【五千米競步】 1、和田 ▲2、高田 ▲3、北見(北海道)(以上日本新記錄)
【마라손】 1 西岡(四國) 2時間31分16秒 (日本新記錄、世界最高記錄) ▲2 南昇龍(全南) 2時間32分33秒 ▲3 …(西國)
【四百米】 1西(朝鮮) ▲2今井(京都) ▲3吉住(明大)
【三千米障碍】 1 內田(關東) ▲2 …
【二百米】 1 鈴木(北陸) ▲2 阿武(南鮮) ▲3 谷口(近畿)
【四百米繼續】 1 …(日本新記錄) ▲2 …
【投槍】 1吉田(中央) ▲2 …
【千五百米】 1 …(滿洲) ▲2 內田(關東) ▲3 朝倉(早大)
【五千米】 1 …(近畿) ▲2 名島(明大) ▲3 丸山(北海道) ▲4 …(朝鮮)

【男子軟球戰決勝】 ○愛知縣 3—0 廣島×
【男子籠球決勝】 東京 35 (13—15 / 22—13) 28 成城
【硬球一般硬式決勝】 ○東大 1—0 牧野×
【硬球中等單式決勝】 ○福田 1—0 松本×
【硬球中等複式決勝】 愛知一中 1—0 廣島商業

蹴球決勝戰
全朝鮮蹴球決勝日記錄
小學은忠信優勝 中學은鏡農再勝
雀躍、含淚의雙奏曲

조선체육회 주최 본사 후원의 제十四회 전조선 축구대회의 최종일로서 오후전 결정하는 각부 우승 결승전은 四일 오전十시四十분 소학부의 충신학원 (忠信學院)대 보인학교 (輔仁學校)전을 비롯하야 매마친 기술을 재속하는 묘기를 발휘하며 경성운동장에서 열리엇다.

오후 一시반부터 중학의 결승전인 경성농업(京城農業)대 신천 신성(信聖)전은 허천주(許川主)심판으로 열리매 그 경과는 다음과 같다. 이리하야 소학단에는 충신학원이 우승 하엿다.

2(2—0,0—2 / 1—0,0—1)3

忠信軍優勝
輔仁延長까지善戰
◇小學團決勝戰

鏡農二 信聖一로敗北
中學決勝戰結果

談合被告有罪되면 土木界總沒落?
朝鮮안의關係者는除去할터
公判과總督府對策

遠來의雄基
善戰力鬪에 遂樸逸
延長에朝蹴得勝

2(0-1, 1-0 / 1-0, 0-0)1

平壤崇專勝
後半에 끝을 一點못얻어
普專아깝게含淚

1(0—0 / 1—0)0

延專軍大勝
四對一로普專敗

明日天氣는曇後晴

鐵道聯絡會議
事項을決定

無許齒醫處罰

無賃乘客引致

主要談合의四事件 事實을全部是認
開廷三回에被告廿五名審理
一瀉千里의土木大公判

제三회경성 대부분 담합사건의 공판은 四일오전十시에 개정되엇다. 피고인의 출정과 변호인의 입정은 여전하엿으나 방청인은 반수로 줄어지엇섯다.

效力一等 當選淋藥
慢性全治用一週分 四圓
急性全治用一週分 二圓半
慢性重症 全治用十五日分 八圓
急性重症 全治用十五日分 五圓
京城鍾路二丁目八七ノ一
株式會社 平和堂 藥品部

淋疾患者의大福音
當選淋藥出現

皮膚泌尿花柳病
醫學博士渡邊晋

岩崎大海堂 セメン菓子

대하증에 오기나球

독일물감 染料藥品
京城府南大門通四丁目 合資會社 福壽洋行直賣部

開業五週年紀念謝恩
1、雅淡하게新築한別邸를開放
2、十餘名모던女給特別써비스
3、味覺淸新한料理二割引提供
和洋料理 春木庵 全南光州邑電話三〇一別邸三六一番

조선의자랑 우리의옷감 태극성광목

高級住宅地分讓
一、場所及位置
二、槪要
三、設備
四、賣價
五、方法
右模範的朝鮮文化住宅地로提供코저하오니 特乞高命하옵나바本十一月內에申込이계신分에게는完成紀念으로特別取扱하겟삽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一九番地
大昌興業株式會社 電話光化門二〇三一番

群山勞働界又一問題
客主側勞賃減下
◇一시에 매석 三전을 내렷다
方今勞賃不受코抗爭

【군산】 군산가항(加□)정미소에서 입조하야 와이자근번 팀하七백노동자가 방금 다망중에잇는이때에 군산객주조합(客主組合)에서는 지난三일부터 一제히종래에 벼 매석에 十一전씩을 주던 하륙(下陸)임금을 八전 또七전씩을주던것을 五전씩을 줍지에 감하하야 쟁의로 그들의 방금면조가중에잇다한다。

현기 하역에 [illegible]노동자들은 노동공제회(勞動共濟會)이와 백명이며 그회에는 공신회원(共信會員)이 七十명 전군산 노동회 약五十명합하야 二백二十여명으로서 그들은 지금까지 일할하던 노임을받지를 아니하고 반대하야생생 이라한다。

會者嚴重 詳細調査하야 實情及[illegible]을 通知한것。一、社員及 組合員을 倍加募集키 爲하야 系員을 派遣할것。

民心作興週間

【연천】 경기연천군(漣川郡)에서는 十一월一일 오전十시부터 一반유지들을 청하야가지고 회합케하야 오는十일부터 十三일까지 一주일간을 민심작흥주간으로 정하고 전군민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행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오후三시반에 산회하엿다 한다。

文部省視察員 十一日東京出發
평양의전생 또 정관주의로 「日本開業에同情？」

【평양】 평양의전 시찰원을 가다리다 못해 불안한공기에 쌓인 학교당국 사정하고저 상경하엿든 평양의학전문학교 급천(及川)교장은 一행하고 기다리기로 되엿다。 문부성에서 시찰원으로 결정한 동대(東大)교수 림(林)박사와 경대(京大)명예교수 삼도(森島)박사 一행은 오는十一일 동경을 떠나 오는데 공전이 一일 총독부에 도착하엿다。 이 일행은 종도에 대구의전을 시찰하고 十五일경 평양의전을 시찰한 후 총독부 학무국에서 협의한 후 평양의 의전을 시찰할 예정이라 한다。 양성이 모다 평양、대구、두전문의 인정개업허가 평부운동에 크게 동정하는 모양이라 一행이 다가면 기대한대로 실시될 가능성이 잇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하생一동은 조용히 그들의 시찰을 기다리기로 태도를 결정하엿다 한다。

鍛磨體育會 지난一日創立

【평강】 지난 평강(平康)읍상 경기에서 조선의 신기록을 놓가 할만한 빼기록을 작성한 평강군 여내면에 거주하는 일반선수와 유지가 합동하야 지난一일 오전 十시에 당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권태국(權泰國)씨 사회하에 회칙의 초안을 통과시킨후 역원을 선거하엿다 한다。 피임된 역원은 다음과 같다。

▲會長權泰國▲副會長方鋼天▲總務金仁承▲陸上競技部長金昌鍛▲野球部長權祥五▲庭球部長林昌根▲蹴球部長林寅[illegible]▲社交部長金昌[illegible]

論山에出現햇든
强盜遂逮捕
전후사실을 모두 자백하야 잡고보니六十老人

【강경】 기보=지난 九월하순파 十월二十일새벽 二차에 걸하야 충남논산군 성동면 정지리(論山郡城東面定止里)부호 최방열(崔邦烈)의집에 강도가 들어와 위협하야 금품을 가지고 도주하야 강경(江景)경찰에서는 최(崔)사법주임이하 二인의 형사대를 인솔하고 범인수사에 활동중이라 함은 보도하여왓거니와 당지 경찰에서는 二개월에 당하도록 범인을 체포치못하야 이래 무려한 채이한결 느껴며 무을을 왕하엿다가 어떤 유력한 단서를 얻어가지고 약비 형사부장이 형사하명을 대동하고 지난三十一일에 범행당자인 성동면(城東面)에 출동하야 탐문한 결과 주산부락의 미보(閔某)라는 六十一세된 노인을 체무하여다가 취조한결과 그노인이 전후 자나 전기최씨부집에 들어가 범행한사실을 일일이 자백하엿다 한다。

農民社八週記念

【서천】 서천군 농민사(農民社)에서는 지난 二十九일 조선농민사 지부창립八주년 기념식을 당에서 가정비사 대표 백여명이 모여 성대히 거행한후 전군 회대 이사석을 개최하고 농민기의 발 동방침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엿다고 한다。

一、社員義務金을 期內에 完納할것。一、各社組織에 農民『農民』文社를 購讀할것。一、郡內不良[illegible]

江陵의農漁村負債
百五十萬圓을突破
每戶(農村)百九十圓(漁村)二百七十圓
增加比例가五十七%

【강릉】 농산어촌의 피폐가 날로 심하야가는 현상으로 더욱이 추수기에 이르러서는 일부사채와 정부과정이며 지세방면 가차없는 강제집행등으로 농촌장이 피폐함이 날로 심해하야 농촌、어촌、산촌 등지에 비하여 상당한 곤가를 잡고잇어 강릉이나 피폐하는 어산촌의 세궁민들은 이채권등이 자본예로 피할길이 없는 형편이라 이에대하야 이지이 총독부당국에서도 이미 그러한 정리책을 세우고저 그실정을 조사중이라함은 이제강릉군내 농산어촌의 현상은어떠한것인가 최근 군당국에서 부채총액을 조사한 수자에의하면 총호수 一만六천三백二十八호 중에서 농가총호수가 一만一천二백二十四호 어촌호수가 一천一백九十二호이다 그중에서 농가부채호수가 六천九백二十호 어촌부채호수가 七백二十五호로 총어촌부채총액이 一백五十二만 六천九백六十원인데 농가부채액이 一백三十二만 四천七백六十九원 어촌부채액이 二十만二천一백九十一원이다。 이것을 부채자 매호평균을 보건대 농가는 매호평균이 一백九十一원 四十四전 어촌매호평균이 二백七十八원 八十九전이다。 그러고 그부채호수에 늘어가는 비례를 보건대 농가는 총호수에 비하야 약五十七퍼센트 어촌은 六十二퍼센트를 점령해잇는 현상이며 이들은 대개가 중산계급 이하에 속한중이라 한다。

債務者들은
赤字투성이
◇…부채자의종별로보면
中産階級이最高額

그러면 이부채가 어떠한 방면으로 소비되엇으며 채권자는 누구인가? 사용한것은 두가지로 나누어잇으나 생산방면에 투자와 불생산방면의 소비이다 생산방면의 부채액은 一백四만四천八백十四원 불생산방면의 소비액이 四十八만二천一백四十六원이라 한다 이부채자금에서 생산외종액은 九十四만六백원으로 매호당 一백二十三원이나 구채정자과 이사람 공제하고나면 결국 六十八원四十전이란 지자를 보게되는 형편이다 이채권자별을 보건대

個人	三五六、二八七圓
銀行	四三九、八○八
金融組合	六四八、○一五
勤務共濟組合	一五、一七六
漁業組合	六七、六七五
計	一五二六、九八○

이와같이 금융조합이 최고액인것을 보아서 중산계급층이 그만큼 부채자가 많은것을 추측할수가 잇는것이다。

그러고 이자별로보면 다음과 같다。

債權者	最高	最低
個人	月六分	同三分
銀行	年九分五厘	同八分八厘
金組	日步三錢八厘	同七分
勤組	月一分	同一分
漁組	月三分	同一分

鏡浦臺의秋色 【四】

五百년전 이조 중종(中宗)때 강릉부사 한급(韓汲)가 [illegible] 지금으로부터 [illegible]四백 [illegible] 박씨(朴氏)가 [illegible] 숙종대왕(肅宗大王)의 어시와 액(額)이 아직도 이 정자에 걸리어잇다

洛東江復舊工事遲延
沿岸住民被害莫大
言明한竣工期에 着手도안해
또浸水되어麥耕不能

【김해】 세상을 놀래게한 금년 대홍수에 낙동강제방을 四十처나 결파시키 비가아간만오거나 또는 상류지방에서 조금만 비가와도 그유역은 홍수가 침습하야 가락면북정 대사(駕洛面北亭大沙)一대가 흙물 바다로변함은 세상이 다아는바 이지역의 복구공사는 금년 맥경시절(麥耕時節)까지는 준공하야 맥경에 아무상치없게 하겟다고 경남도에서 명언한것이 오늘날 까지공사는 착수도 아니하야 몇칠전 비에 또 물이 고이어 바다같이 되어잇어 이재민의 원성이 자못높다한다。

이지역의 이재민들은 금년가을 수확은 변변치 없어서 오직 맥경이나 하여 두어야 장래를 촉망할것을 보리씨조차 뿌리지못하얏슴에 장래가 자못망연하다고한다。

安岳郵所接受金 五百圓行方不明

【안악】 지난二일 오후三시경에 안악읍 판과리(安岳邑板八里)이모(李某)의 고용인 김형설(金□□)(二□)이가 주인의 돈 五백원을 가지고 우편소(郵便所)에 가서 송금하려고 우편소 위체계(郵便所爲替係) 림모(林某)에게 위체를 청하고 돈五백원을 주엇다는데 五백원이 행방불명이라는데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을 조사한바에 의하면 김형설은 분명히 五백원을 부치엿다하고 림모는 전연 받은 생각이 나지 안는다고 하는데 안악경찰서(安岳警察署)에서는 김과 림 二인을 인치하고 엄중히 취조중이라고 한다。

開城의唯一中等校
松都高普法人運動
五十만원의 재단법인을 계획
純朝鮮人機關組織

【개성】 개성송도고등보통학교(松都高等普通學校)는 지금으로 부터 二十七년전 미국남감리교회 선교사의 손으로 창립되엇다。 처음에는 개성의 유지 윤치호(尹致昊)씨가 취초의 교장으로 치임되어 한영서원(韓英書院)이라고 부르다가 그후 신교육령에 의하야 고등보통학교로 지정한것을 따라 현재의 송도고등보통학교로 되엇다。 그러데 세계재계의 공황으로 인하야 미국남감리교회의 합동으로 보계되든 미국선교부측에서는 각방면의 선교비가 단축되게되자 그파급이 송도고보에까지 밋어서 이에도 내년부터는 보조액이 줄어들거나 아조없어질지경에 이르럿다。

개성에 단지 한개인 중등학교가 이같은 비운에 빠지게되자 동교교장 김승항(金承□)씨는 비운에 빠진 동교를 어떠케하면 구하야 개성의 사람에게 이사정을 호소하기 위하야 동교졸업생 공성학(孔聖學)씨와 박기로 지난一일 오후五시 시내묘정 전향원에 개성의 유지 十여인을 초청하야가지고 동교의 절박한 사정을 설명한후 그조직에서 송도고보 재단법인 기성회를 조직하기로 되엇다는데 그 목적은 그만한 성의를 다하야 기금 五十만원을 목표로 하야 선교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는동시에 순조선인사측의 [illegible]이라 한다。

재단법인 [illegible] 안수를 하여가지고 부족액 二十만원을 일반의 기부로 충당코저 하엿든바 이에 그二十만원중 十만원은 선교부에서 기부하기로 되고 [illegible] 동창생에게 [illegible] 만원을 개성의 유지에게 기부를 받을 계획이라 한다。

水害地視察團 김천에서모집

【김천】 경북김천상공회(金泉商工會)에서는 금년여름북선(北鮮)에서 수해당한 군내의 재해지 임진(臨津)과 파곡(果谷)지례(知禮)등지를 시찰하고 검하야 대덕면(大德面)과 전북무주면(茂朱面)월천면(月川面)등지를 시찰할 계획을하고 단원(團員)을 모집중이라는데 시찰일시는 十一월五일 오전八시에출발하야 동일저녁에 귀착할예정이라 한다

警備車爆發 兩軍이犧牲

이원(伊原)오장이하 이견(犬見)기대의 十一명은 반만군 三十을 토벌케하야 경비차로 순찰도중 김해선 연도산(?)부근에서 경비차와 화물열차가 충돌한순간에 노주를 기도하엿음으로 대소화가되어 그때에 차중에 적재하엿든 박격포탄과 수류탄이 파열되어 전원이 비참한주검을 이루게 된것이다。

疾走貨物自動車
靑年轢殺코逃走
사람을 죽이고 모른척하고 도망
運轉手、助手逮捕取調

【진주】 지난一일 오후 七시경 진주수정정(晋州壽町)모퉁이에서 자동차에 치여죽은 시체하나를 발견하엿다고 대소동을 이르키엇는데 이급보를접한 진주경찰서에서는 자시 서원이 현장에 출동하야 시체를 검시한 결과 두부(頭部)에 큰 파상을 입어 현장에서 즉사한것인데 동리에 사는 이정운(李正雲)(二□)으로 판명되엇다

이와같이 사람을 죽이고도 모른척하고 다라난 자동차에 대하야 엄밀히 조사하엿는데 시내영정(榮町) 곡구(谷口)라는 일본사람 소유의 화물자동차 경남一三○八호 운전수 김영수(金榮洙) 동조수 박삼기(朴三基)두사람을 혐의자로 체포하야 엄중한 취조를 하든중 사실을 자백하엿다는데 원인은 조수가 대신운전하여 오다가 그와같은 사고를 낸것이라한다。

南朝鮮蹴球 日字를變更

【순천】 기보=순천체육회(順天體育會)주최 제四회 남조선축구대회는 본보 순천지국 후원으로 오는 十七、八일에 열기로 하엿든것이 형편에 의하야 十一、二 양일로 변경하엿다는데 멀리서부터 먼곳에서 참가단체가 잇어 성황을 예기한다고 한다。

겨울 먹이 준비 宣川保聖女學校에서 學生들의 김장준비 한참바쁜

馬山上水不淨은
沈澱池不備
여과지 가막히어 濁물로돼
荻野博士檢查結果

【마산】 기보=마산 상수도(上水道)정수지(淨水池) 수선공사로 단수이래 五十여일이되도록 물이 맑지아해 부당국에서는 매우초조하든중 최후의一책으로 총독부촉탁 리학박사 적야(荻野)씨를 초빙하야 지난三十一일 검사하엿다는데 그결과 의외에도 마산 상수도에 一대결함을 발견하엿다는바 전쟁시킨후 여과지에 정수를 하여야 완전한것이나 마산에는 기요한 침전지(沈澱池)의설비가 없으므로 수원지의 흙물을 바로 여과지에다 정수하게되여 흙물에 석인 진흙이 여과지 모래우를 덥허막음으로 지금까지 음료수로 물은 맑지아니하얏다고 한다。

歙谷에染病 一名이死亡

【통천】 강원도 흡곡리(歙谷里)에는 지난달 초순부터 장질부사가 발생하야 一명이사망하자 뒤를이어 벌서五인의 감염환자가 생겨 일반이민들은우려하는차에 통천(通川)경찰서에서는 장차 창궐할전조가 잇다하야 지난一일부터 二일간병발생부근八리 一천八백수민에게 예방주사와 소독을 실시하야 방역에 적극노력중이라고 한다。

平壤火災에
放火嫌疑
주인인치취조

【평양】 一일새벽한시四十五분 부내 죽전리(竹典里)六九번지 재봉상점 김영순(金永順)(假名)방의 화재에 경찰의 혐의가 붉어 김영순은 방화피의로 인치되엇다 화재는 소방대의 직각출동으로 초기에 세찬바람인에도 복구하고 그집한채를 태웟을뿐 손해는 二백五十원에불과 하지만은 혐의받는 김영순은 十일전에 一천원 화재보험을 일본해상화재보험에 가입하엿슬뿐 아니라 집보신축비용이 없서 걱정하든 차이라는 설이 동후하야 一일 평양서 소산(小山)사법주임이 현장을 임검하는 동시에 김영순을 인치하고 취조한다。

……苦灘勞働組合新築紀念……

嫐父는刑事로
男便엔慰藉訴訟
二남一녀두고十년간살다
海州邑富豪家에珍訴

【해주】 해주읍상정(海州邑上井)이승수(李承洙)씨 차녀 연식(燕植)(二□)은 해주읍동영정(東榮町) 부호 김상돈(金相敦)씨를 가택침입(家宅侵入)죄、상돈씨장남 광엽(光燁)(二□)씨에게는 五만一천원이란 거대한 금액의 위자료(慰藉料) 청구소송을 해주지방법원에 제출한 진기한사실이잇다。

리유는 원고 연식과 위자료 피소자 광엽은 지금으로부터 十년전 학생시대부터 끈을수없는 사랑을 맺어서 오늘날까지 二남一녀의 자녀까지 낳게되어 이래十년간을 몹시 화락한 가정의 단란을 맛보아 가면서 살아오든바 근일 남편이엇든 광엽씨가 전과 다른 태도를 취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하야 가정불화는 맛참내 남편으로부터 절연이 언명까지 나리게 되어서 오직 남편의 개심하기만 기다리고 무엄이 참지 살든 집을 잠그고 친가로 가잇든 동안 시부 김상돈씨가 사람을 시켜서 잠근문을 열고 가장 집물을 가져갓섯다。 이에분 연식은 남편의개심을 더 기다릴수없음을 깨닷고 전기와 같은 형 민사 양건을 지난一일에 일으킨것이라고 한다

會合

◎平壤正義女學校學藝會 지난一、二、三의 三日間同校에서 開催

◎抚安郡各公普校學生作業展覽會 去十四五兩日에開催

◎新昌山公普校農產品評會 去一日同校에서開催

消息

◎金貞德氏(龍仁郡農務主任)最近郡農任人事次 本報龍仁支局來訪

◎李正根氏(金堤副社長)新任人事次去二日本報金堤支局來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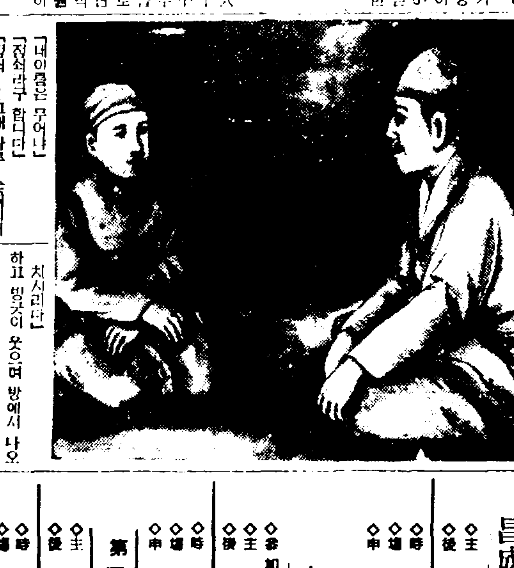
蜂火 (七)

尹白南 作
李靑田 畵

六、봄 (5)

「하여튼 여기서 이야기가 되나 이리 들어오너라」

하고 치문이는 안방에서 소년을 불러 자기행랑채로 더리고 들어갓다。



「내이름은 무어냐」

「정쇠라구 합니다」

「정쇠……그래 바루 숫재에서 노인장을 만나보엇지」

「네」

「그래 어째서 날 찾으라구 하시든냐」

「다른말슴이아니라 내가 서울 가서 어느댁이든지 인품 좋은 큰댁에 가서 상노노릇이나 하구싶다고 여쭈엇더니 그럼 내뚜작평 이율미댁에서 상노를 두실테니 그리로가되 그댁에는 당신의 조카사위 치문이란사람이 벌써로 잇으니 찾어가서 내말을하면 도리가 잇으리라고 하서서 왓습니다」

「아따 그어른 남의일 보아주시기 떠이나 좋아하시지 그처루 팔짜야」

「여보 마누라」

「네」

「이리좀 나오。예가 숫재에서 당신의 삼촌어른을 만나뵈엇다는구려」

「그래서요」

「우리댁에서 상노를 구하니 가서보라구 하서서 찻어왓다는구면。 나이얌이라면 밥벗고 나서서지。 내 그래 지금 그젓두 팔짜소관이라구 그랫소」

「당신생원에는 그천성은 못고치시라다」

하고 빙긋이 웃으며 방에서 나오더니 정쇠의 얼굴을 보고

「똑똑이 생겻구려 주인마님께 여쭈어보시지」

「글세」

「내고향은 어디냐」

「아주 업어요」

「머두 가깝고간에 동어들부 없어요」

「마산(馬山)더분들이라는 데에요」

「마산、마산이면 무에 멀어서 그래 거기서 배 양친은 사시는구나」

「집이 없어요」

「집이 없다니 양친은 어디게시구。」

「아요。양친은 돌아가시구 나만 이저저십 울러다니며 자랏어요」

「저런 원간한 팔짜로구나 생김생김은 그렇지 않은아이가」

하고 다시 한번 똑똑이 정쇠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여보 마누라」

하고 부엌에서 일하는 안해를 불러서

「이애 양친두없다는구려。저녁이나 우선 좀 먹이우」

「에구머니 불상두해라 오죽 답배두 주렷으리」

「그래 그동안 남의 집없이만 햇다빨이냐」

「원길요。상일은 할줄도 몰라요。그래서 빗장사를 해서 먹구 살엇지오」

「하엠 빗장사냐」

「에구 당신두 그럼 아이들이 빗장사 아니면 엿장사나하지。 옹짐장사를 하겟소、힘이잇으니 옹기를 짊어지구 다니겟소」

「미천도 적게 들어오」

「그두그렇」

하며 지금의 정쇠가 끌려왓든 배랑으로 시선을 보낸다。

「저게 모두 빗이냐」

「네」

장쇠는 배랑을 풀러서 방에 놓고 빗치를 끄집어내서 그들과 앞에 늘어놋다。

「아따 잇은 그래두 가지가지로 가지고 다니는구나。그런데 방장 사람 해서라두 편안하게 지낼 때 달이 생기노릇을 하려구。그런다 라면 누구한테서 그노릇을 하지 말고 남의 집 상노라면 보기엔 이니란다」

「네 그런데요 엇다 더그립지만 대가라 상노노릇을하면 자면 배워지는 첫두 없고 또 오래만 잇으면 장래성도 잇지않어오」

「그둔 그렇진」

「주인마님께 여쭈어서 이때에 잇게 해주세요」

「글세 여쭈어는 보지마는 무시고 안두시는지 주인 마님의 처분이니까 알수잇나。그렇구 내 근지로 물르시니까 무엇이라구 하실는지 그러 모르겟다 하는 기는구나」

「어수텐데 걱정조차 하나가 생기는구나」

「얼마에게 할 체조가 [illegible] 잘해 줍소」

「[illegible]」

하고 누릉을 득득긁엇다。

北朝鮮蹴球大會

◇時日 十一月十一日、十二日午前九時
◇場所 明川東面舍洞市
◇參加金 一團 金壹圓也
◇申請 十一月十日까지
◇主催 東亞日報社明川支局
◇後援 舍洞市民會 舍洞樂友會

昌成幼稚園同情音樂及素人劇

◇時日 十一月六日下午七時三十分
◇場所 象二浦劇場
◇主催 象二浦長老敎會基督靑年勉勵會
◇後援 東亞朝鮮象二浦兩支局

中部朝鮮蹴球大會

◇時日 十一月十二日午前九時
◇場所 淸州公普그라운드
◇申請 十一月十日까지 淸州聖明俱樂部 又는 本報淸州支局으로
◇參加金 三圓(晝食提供)
◇主催 淸州聖明俱樂部
◇後援 東亞日報淸州支局

第一回南朝鮮野球大會

◇時日 十一月十二日(雨天延期)
◇場所 曾坪校庭
◇申請 十一月十一日까지
◇主催 東亞日報社淸安支局
◇後援 曾坪靑年會

淸州少年少女懸賞童話大會

◇時日 十一月六日下午七時
◇場所 淸州金組樓上
◇申請 本報淸州支局으로十一月五日까지
◇主催 淸州少年會
◇後援 東亞日報淸州支局

尹白南野談大會

十一月五日	淸州	九日	汶山	十日	開城
十一日	瑞興	十三日	兼二浦	十四日	平壤
十五日	鎭南浦	十七日	嶺美	十八日	定州
二十日	宣川	廿一日	鐵山	廿二日	南市
廿四日	運餉				

主催 東亞日報各支局

米價公定制 (五)

自體에包藏된弱點

高在旭

第二回米收穫豫想

第一回豫想보다 十三萬八千石減

風害、稻熱病의局部的發生으로

一九三〇年에다음가는豐作

◆總督府農林局四日午後零時廿四分發表◆

十一月一日現在米第二回收穫豫想額을 調査하건대 第一回豫想後의 氣候狀態는 大槪適順하엿으나 局部的으로 風害及稻熱病의 發生이잇어 第一回에比하야 多少減收量 豫想케하나

卽收穫豫想額은 水稻千七百八十四萬八千七百二十二石、陸稻二十六萬八千二百一石、合計千八百十一萬六千九百二十三石이어서 第一回豫想額에 比하야 十三萬七千九百七十五石(八厘)의減少이나。前年實收額에比하야 百七十七萬千九十八石(一割八厘)의增收를示하엿다 다음에 米收穫高累年表及今年第二回收穫豫想高及前年實收高와의比較表는如左하다

米收穫高累年對照表 (△印減)

年次	水稻 (石)	陸稻	合計 (石)
昭和三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四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五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六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八年(第一回豫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第二回豫想)	一七、八四八、七二二	二六八、二〇一	一八、一一六、九二三
第二回豫想의前年에對한增減	[illegible]	[illegible]	一、七七一、〇九八
第二回豫想의第一回豫想에對한增減	[illegible]	[illegible]	△一三七、九七五
同增減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最後案을作成

印度側과折衝

考慮中의政府案內容

[illegible]

移出港在米

納月比十五萬石減

[illegible]

朝鮮米의冬場運賃에暗礁

釜山穀組協調拒否

[illegible]

金買入出動

數量、價格極秘

一切買上細目、經濟準銀에委任

[illegible]

本年度米粟

移輸出入總額

[illegible]

朝信、釜信 買收條件發表

◇買收價格六十二萬六千圓

[illegible]

朝鮮米協會를 社團法人으로變更

[illegible]

米日爲替保合

[illegible]

時勢와市況

今日의市況 ◆十一月四日◆

株式 (單位十錢)　正米 (三等單位)　期米　商品 (單位十錢)

[illegible]

米 金買上價 二十一仙引上

[illegible]

株式 商勢强保

前場伸悩

[illegible]

日前波瀾豫想

鐘新依然堅調

後場 土曜休會

東新、大新、鐘新의 連鎖劇的場面

[illegible]

材料의强弱 議事高待와

[illegible]

財◇海◇餘◇波

[illegible]

朝取短期前場步調

[illegible]

大阪短期前場步調

[illegible]

朝取主要株取組

[illegible]

東京國債市況

[illegible]

米期 二十二圓臺 無難히突破

小口의煎買續出

前場續騰

[illegible]

後場保勢

[illegible]

오래간만에 二十二圓突破

[illegible]

米豆餘聞

[illegible]

押目買氣熾烈

[illegible]

各地의商況

仁川强硬　南浦弁騰　釜山不變　大邱奮騰　群山上放

[illegible]

海外經濟·金融及商品市況

[illegible]

正米 各地의商況

京城急騰

[illegible]

株式名義書換停止公告

[illegible]

昭和八年十一月四日

朝鮮信託株式會社